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10]

“일대일은 신앙성숙에 가장 좋은 길”

2001 / 페이지 수 : 3

“나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신만인 장로의 고백이다. 78년부터 부인 따라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바쁜 직장생활 핑계로 주일은 가능하면 피로회복하기 위해 주력했을 뿐이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던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니 안수집사도 되었다. 그리고 장로로 임직되려던 해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입에 담기 싫은 일들이 생겨나자 신만인 장로는 교회를 옮길 결심을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신만인 장로는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무지한 채 장로가 될 뻔 했던 신만인 장로가 일대일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무지한 신앙인 깨워준 일대일

신우권 장로와 일대일을 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단편적이었던 성경지식들이 체계를 잡아 갔다.

그러나 양육자가 되어 양육을 하면서 더 많이 배웠다. 양육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공부하고 적합한 간증과 체험을 준비하다보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자신이 동반자일 때는 숙제도 잘 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요절도 잘 외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양육자가 요절도 잘 못 외우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워야 했다.

그렇게 만난 김원규 장로, 김 장로는 믿음도 좋고 성경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만났다. 아쉬운 것은 둘 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재미있게 못했다는 점이다. ‘교제’부분을 할 땐 오페라라도 보고, ‘전도’부분을 할 땐 ‘실제로 전도를 해볼걸’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가 전부였다. 신만인 장로는 일대일 양육에 앞서 ‘구원의 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다음 공부들은 지식을 쌓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지긋한 두면의 성도와 일대일을 한 적이 있었다. 두 성도 모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인지 쉽게 ‘구원의 확신’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1년을 넘기며 겨우 양육을 마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두 사람이 예비순장을 하는 등 너무도 많이 변해있다. 그 두 명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단다.

일대일하면서 의형제도 생기고

김원규 장로는 일대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빠도 일대일은 하려고 한다. 장로로 임직된 후에는 하는 일이 많아 졌다. 그런데 공동체 식구 중에 ‘저는 꼭 장로님에게 받고 싶어요’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원규 장로는 일대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일대일이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이 성

속해 가는 거예요”

일대일이 성경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속지해야 할 것을 아무렇게나 지나쳐서도 안 되는 일, 김원규 장로는 각 장마다 꼭 속지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동반자를 만나면 말씀암송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웠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김 장로의 일대일의 원칙이다.

이런 김 장로에게 연배가 비슷한 최종훈 성도는 일대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했다. 두 사람 다 연배가 비슷해 처음엔 일제시대 얘기도 하고 피난 내려와 고생한 얘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새벽의 만남시간은 포근해져갔다.

어려서 피난 내려온 최종훈 성도는 친척이 없어 외로운 사람이었다. 일대일 만남은 그들을 ‘의형제’라는 끈으로 묶어주었다. 지난 98년에는 부인들과 함께 4명이 성지순례도 다녀왔다. 지금도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양평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온다.

배운 대로 가르쳐

최종훈 성도는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자는 말에 내심 내키지 않았다. 성경을 잘 모르면 참 피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김원규 장로를 보면서 인간적 친분도 생기고 삶을 나누는 것이 참 좋았다.

사실 공부란 게 어느 정도 타의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다. 일대일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체면 봐서, 등 떠밀려서 일대일을 했지만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른다. 또 자신이 일대일 양육자가 되니 더 그렇다. 가르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미리 공부해야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최종훈 성도도 김원규 장로에게서 배운 대로 동반자를 만나면 먼저 인간적으로 친숙하기 위해 노력한다. 온누리교회에 온지 3년 된 김주흥 집사는 자신의 신앙성장과 섬김을 위해 부지런히 배웠다. 지난 해 5월부터 시작된 최종훈 성도와와의 일대일을 하면서 그동안 산만했던 신앙이 자리를 잡았다. 김주흥 집사가 최종훈 성도에게서 배운 것은 성경 지식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겸소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삶이 그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다.

김주흥 성도가 일대일을 통해 가장 잘 배운 것은 ‘큐티’였다.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역의 터에서 섬기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올해 3월 박진호 형제와 일대일을 처음 하면서도 최종훈 성도에게 배운 것만큼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해왔고 온누리교회도 자신보다 선배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열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신앙생활 과정을 주고받으며 간증을 나누고 예수만난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들이 지나갔다.

더 힘써 양육 해야죠

박진호 형제는 “김주흥 집사님은 참 정직한 분이세요. 자신의 흠이나 부끄러움도 스스럼없이 말씀하시곤 했죠. 왜 감추고 싶지 않았겠어요. 단지 자신이 양육자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 고마울 따름이에요”라고 말한다. 당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박진호 형제의 삶을 나누고 기도했다. 그래도 김주흥 집사는 박진호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노라’고 말하며 “지금 한 부부를 하고 있는데 진호형제에게 못해준 것을 이들에

게 쏟아부어주고 싶다”고 한다.

박진호 형제는 지금 훨씬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좋아졌다. 일대일 덕분이라고 믿는다.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걱정했던 ‘일대일양육받기’였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 더구나 자신이 보아도 편안한 성격이 아닌 그에게 김주홍 집사가 애쓰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다.

지금은 바빠서 양육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양육자가 되어 주고 싶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기쁨을...

*** 출처 : 큐티와 일대일**